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사람 살리는 법 가르쳐 주는 스승

나는 갈등이 많다. 사인(死人)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과 활인(活人) 사람을 살리는 것 사이에서 겪는 직업적 갈등과 고민을 늘 끌어안고 사는 것이다. 이런 번뇌를 가라앉히기 위해 경전도 열심히 읽고 좌선도 해봤지만 마음 속 한구석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제가 찾았구나!"하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손뼉을 쳤다. 그리고는 다짐을 했다. "비록 속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지만 그에게 집짓 다시 세간법(世間法)으로써 처벌을 내리는데 어찌 마음의 갈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죄인의 죄 값을 현세에서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육신이 멸한 후 다시 그 죄 값을 받게 될 것이니 잠시 법

그러던 1994년, 수 한손에 법전을 들고 선회 회원으로 활동 한손엔 현대불교를... 불교신문을 처음 접하게 됐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자기와 '뜻'이 일치할 때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현대불교와 나는 '코드'가 맞았다. 불교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기사와 각 계각층의 실행생활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큰 스님들의 법문은 사인과 활인 사이에서 갈등하던 내 마음의 번뇌를 놓을 수 있게 해준 기폭제가 됐다. '아하! 내가 그토록 찾던 파사현정을 이

라대왕의 권한을 빌어 그 죄업을 현세에서 짓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내가 맡아 보자' 다시 말해서 한 손에는 법전(法典)을 한 손에는 현대불교신문을 쥐고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물론 교화하는 일에도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다. <강영권 / 광주 고등검찰청 부장 검사>



"현대불교신문을 꾸준히 읽으면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신문은 배달 받은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관심분야만 읽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다. 종합지의 경우 제목만 읽고 특별한 관심분야만 읽는다는 독자가 80%를 웃돈다. 그러나 전문지, 그 중에서도 종교전문지인 현대불교는 지난 10년간 전체 지면 가운데 독자 개인이 갖는 '특별한 읽을거리'가 많은 신문이란 평을 들어 왔다. 그간 본지가 여론 수렴과 모니터링을 해 온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큰스님의 법문과 문화 소식, 책 소식, 법회 안내 등의 콘텐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 읽을거리를 탐독하고 난 뒤에도 지면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자들은 현대불교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지난 10년간 지면에 반영된 현대불교의 사명(使命)은 독자와 얼마나 고르게 호흡을 맞춰 왔을까? 본지 창간 1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를 애독하는 독자들에게 질문했다. "당신의 삶에 현대불교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법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신문

현재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격주로 강도도 전등사에 나가고 있다. 나는 '사찰 문화재 안내 전문 포교사'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사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설명하며 '불교 제대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싶어 포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불교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왔다. 불교는 알면 알수록 깊이 귀의하게 되는 종교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부터는 문화재에

문화재 해설 포교에 스크랩한 기사 큰 도움

원을 세웠다. 내가 이러한 결심을 하기까지는 현대불교의 힘이 컸다. 처음 현대불교를 보게 된 것은 기획 연재물 중 사찰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다. 특히 '잊혀진 가람을 찾아서'와 '돌부처를 찾습니다'와 같은 연재물이 좋았다. 현대불교는 나에게 참여하라고, 직접 행하라고 내음을 찔러냈고 그러면 나는 기꺼이 현대불교와 함께 했다. <임원숙 / 교사불자연합회장>

넘어 우리 문화로 자리매김한 불교문화재들이 합부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현대불교를 읽고 상황 자체에 대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곧바로 일반 봉사 포교팀에서 문화재 포교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잘 지키려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재 공부를 의욕스럽게 해나갔다. 그 덕분에 지금 문화재에 관해서 전문가가 다 됐

다. 현대불교의 기획물이 내게 던져준 '화두'를 풀어가는 것이다. 지금도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있다. 이제는 문화재 지면뿐만 아니라 '법공양', '길은 묻는 이에게' 등도 세밀하게 읽는다.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교사라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도 현대불교가 우리 사찰 문화를 많이 소개했으면 한다. 문화재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승일 / 조계종 포교사>

면마다 지혜사회 여는 열쇠 빛나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나는 그동안 꾸준히 현대불교를 읽어 온 나 자신에게 축하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묻고 싶다. 지난 시간들 신문을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많은 배움을 과연 삶에 옮겨 녹여내고 있을까?

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 불교신문은 불교기초교리에서 마음 공부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로서 길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결혼 초 여러 차례 설법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 대행스님의 자상한 가르침은 각별하게 다가온다. 최근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내려

결혼 초 안양에 살면서 초밥집을 일으킨 일, 아이들을 불교 유치원에 보내기 위

놓은 남편과 함께 한 마음공부체를 지향하는 '지혜경영연구소'를 설립한 용기도 현대 불교신문을 통해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나와 남의 입장을 대등하게 이해하고 한마음공부체를 이루어 지혜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다. 현대불교신문의 10년이 이어져 우리 사회의 미래 100년을 지혜사회로 이끄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명순 / (주)지혜경영연구소 이사>

교리에서 수행까지 한결같이 이끌어줘



삶의 활력소 신행의 분명한 지침

1994년 여름 조계사 근처에 여시아문이 문을 열고 지하에는 녹수정산, 2층에는 현대불교 신문사가 들어섰을 때의 그 기쁨은 무어라고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넓고 쾌적한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에서 우아하게 책을 고르고 녹수정산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돌아볼 여유를 준다. 나는 현대 불교를 통해 그러한 단어를 찾았다. 주인공. 그때부터 현대 불교는 내 신행 생활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불교가 창간되었을 때 독창적인 편집으로 선보인 현대불교를 읽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매달 무박2일 또는 당일 코스로 떠나는 성지순례 테마여행이 있었다. 나는 여러 번 거기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특히 편집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투명한 현실감이 나를 생활불교로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 있을때면 늘 내 책상위에는 한두 권 이상의 경전과 현대불교가 놓여있다. 비록 기독교 학교에서 교편을 잡아도, 부처님의 말씀은 그 어느곳에 있던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하고 다스리게끔

그런가 하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제작, 보급하기도 했다. 우리 집 거실에도 그때 모신 아름다운 '반가사유상'이 사람들을 반기고 계시다. 현대불교는 나에게 참여하라고, 직접 행하라고 내음을 찔러냈고 그러면 나는 기꺼이 현대불교와 함께 했다. <임원숙 / 교사불자연합회장>



큰스님 법문 읽으면서 '하심' 공부



나는 대행 스님 법문을 읽기 위해 현대불교를 구독하기 시작했다. 스님 법문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활력을 주고 살아가는 도리를 알게 해준다.

어떻게 올곧게 수행하는 불자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들은 큰 감동을 준다. 사실 나이가 들기 이전에는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지, 힘든 나날이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수행 이야기를 접하다보니 고치기 힘든 병고와 헤어날 길 없는 죽음, 그리고 아

그때 스님 법문을 오려서 틈만 나면 읽고 메모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틈틈이 메모하며 읽고 자성불 밝히는 힘 얻어

솔직히 처음에는 스님의 법문만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 요즘은 그렇지 않다. 현대불교 전체 지면을 유심히 본다. 불교계의 각종 행사라든가, 칼럼, 큰스님 이야기, 수행일기 등등을 꼼꼼히 챙겨보지 불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참고서는 없을 것이라 믿음까지 생겼다. '릴레이 수행일기'의 경우 여러 불자들의 수행담들이 가슴 저리게 한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

지고 치열하게 수행하여 극복한 그분들의 삶들이 새록새록 다가왔다. 어느 하나의 기사인들의 의미 없이 지면에 실리지는 않는다. 그 기사들이 내게 주는 것은 새로운 소식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불자로서의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기사들이 많아서 신문이 오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다. <김혜석 / 주부>

www.bbsfm.co.kr

-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 FM-89.7MHz
대구 FM-94.5MHz
안동 FM-97.7MHz
포항 FM-105.5MHz
창주 FM-96.7MHz
춘천 FM-100.1MHz



BBS FM 101.9MHz

-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풍성한 가을밤을 찬불가의 선율과 함께!

불교방송 가풍빈가 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번 공연은 가을밤을 더욱 넉넉하게 해줄 다양한 민요와 가곡을 비롯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미터 부처님을 찬탄하는 <오레타타 이미터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시: 10월 20일 / 수요일 / 오후 6시 30분
장소: 이미가 호텔 컨벤션 홀

- 본 공연은 삼성 / 동이제약 박키스 / (주)코레콤 / 아름다운 이유 PAT / 네오미디어와 함께 합니다 -

BBS 불교방송